

# 劉禹錫과 永貞革新

金 銀 雅\*

## 〈 目 次 〉

- I. 머리말
- II. 中唐政治와 永貞革新
- III. 永貞革新에 대한 劉禹錫의 태도
- IV. 劉禹錫에 대한 永貞革新의 영향
- V. 맺음말 <참고문헌>

## I. 머리말

「배우고 여력이 있으면 出仕한다」.<sup>1)</sup> 이것은 중국의 고대 지식인과 정치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다. 出仕를 통한 정치 참여를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이러한 관념은 「修己安人」을 정치이상으로 삼았던 儒家 사상체계 하의 唐代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던 의식이었다. 특히 국가 存亡의 갈림길에 있었던 中唐의 지식인들은 실질적인 參政行爲를 통하여 정치 포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中唐은 安史之亂의 후유증으로 인해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

\* 順天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1) <論語·子張>: 「學而優則仕」.

하였던 시기였다.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唐王朝의 復興이라는 기치 아래 남다른 개혁의지를 가지고 參政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표출하였다. 특히 貞元(785~805)·元和(806~820) 시기의 문인들이 그러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처음에 정치가로서 「兼濟天下」라는 정치이상을 위해 투쟁하다가, 정치포부의 실현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창작을 통해 울분을 토로하거나 性情을 도야하는 문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곤 하였다. 中唐의 劉禹錫도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 중의 하나이다.

劉禹錫(772~842)은 永貞 원년(805), 강렬한 참정의식을 지니고 永貞新'이라 불리는 정치개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정치혁신 운동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유우석은 貶謫생활이 시작됨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후 유우석은 「오직 문장을 읊음으로써 성정을 도야하는」<sup>2)</sup> 수밖에 없었으며, 오로지 창작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치·사회에의 관심과 인생의 고뇌를 표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永貞革新이라는 정치혁신 운동과 관련하여 지식인으로서 유우석의 정치의식 및 그에 따른 삶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詩世界의 변천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 II. 中唐政治와 永貞革新

永貞革新이란 후일 '二王八司馬'라 불리는 개혁파 士인들이 환관 세력을 타도하고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주도한 사건이었다. 비록 順宗 때에 발발한 정치사건이었지만, 그 遠因은 멀리 安史의 亂까지 소급된다.

安史의 亂(756~763)은 唐代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대사건이었다. 7년 안 계속된 이 전쟁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국력은 크게 손상되었다. 그러나 안사의 난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는, 바로 이 전쟁의 진행과정과 평정과정에서 비롯된 몇 가지 정치적 과오였다. 이러한 과오는 中唐 정치

2) <舊唐書·劉禹錫傳>: 「禹錫在朗州十年, 唯以文章吟詠, 陶冶性情。」

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藩鎮의 할거'와 '宦官의 專橫'이라는 현상으로 가시화되었다.

代宗은 安史의 亂을 조속히 평정하기 위해, 당시 叛軍 史朝義를 토벌하던 僕固懷恩의 건의를 수락하였다. 즉 투항하는 반군 장수에게 節度使의 관직을 주어 원래의 관할 지역을 통치케 한다는 것이었다. 본래 강력한 군대를 가지지 못하였던 대종은 이러한 姑息的 政策으로 일단 천하를 안정시켰으나, 이후 끊임없이 중앙 정부에 반항하고 위협을 가했던 변진의 할거에 빌미를 제공하였다. 결국 河北·河南 및 山東 등지에 변진이 출현하더니 이어 전국 각지에서 변진이 발호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藩鎮은 절도사 직위를 세습하기도 하고 혹은 자의적으로 후임자를 결정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군비를 확충하여 서로 공격하는 등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

代宗의 뒤를 이은 德宗은 大曆 14년(779) 5월 즉위하여, 이듬해 建中으로 改元하였다. 즉위 초기의 德宗은 兩稅法을 시행하여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受賂를 금지하며, 귀족의 호화로운 자택을 철거하는 등 새로운 정치상을 보여주는 듯 하였다. 그러나 변진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력을 원활하게 발휘하지 못하였다. 德宗은 강경한 태도만을 견지하여 무력으로 대응코자 하였으나, 唐王朝의 군사력은 약화일로에 있어 변진의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建中 4년(783) 변진의 반란을 토벌하도록 파견한 涇原지역의 군대가 오히려 長安에서 반란을 일으켜 朱泚를 황제로 옹립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德宗은 奉天으로 피신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德宗은 변진을 두려워하여 姑息的인 태도로 일관하게 되었다. 또 봉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으로 인해 재물을 탐하게 된 德宗은 지방관들의 뇌물 진상을 공공연하게 조장하여 백성들의 조세 외 부담을 가중시켰다.<sup>3)</sup> 또한 자신을 보호해 준 환관을 신임하여 兵權을 일임함으로써 환관의 전횡을 초래하게 되었다.

宦官의 세력은 玄宗 시기부터 방대해지기 시작하여 그 인원이 3천명에

3) <新唐書> 권52·<食貨>2: 「朱泚既平, 於是帝屬意聚斂, 常賦之外, 進奉不息。」

이르렀고, 심지어 三品の 장군에 제수된 자도 적지 않았다.<sup>4)</sup> 肅宗·代宗은 환관의 도움으로 皇位에 올랐기 때문에 환관에 대한 신임이 각별하였다. 이 시기 李輔國·程元振·魚朝恩 등은 禁軍을 장악하게 되었으나, 이는 환관 개인의 일시적인 월권 행위였을 뿐 전체 환관집단이 중앙병력의 통제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大曆 5년(770) 대종이 어조은을 죽이고 병권을 회수하여 환관이 아닌 劉希暹에게 넘긴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덕종 시기에 오면 사정은 달라진다. 朱泚의 亂 때, 환관 竇文場 등이 덕종을 보필하였을 뿐, 중앙 군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덕종은 장수들을 신임할 수 없었고, 患難을 같이 한 환관을 신임하게 되었다. 貞元 12년(796), 덕종은 左右神策護軍中尉에 각각 환관 竇文場 霍仙鳴을 임명함으로써 이후 환관집단이 장기적으로 중앙의 병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후 환관은 중앙 정치무대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나아가 황제의 권위를 빙자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宮市'와 '五坊小兒'는 덕종 시기 환관이 저지른 악행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었다.

'宮市'란 궁중에서 사용할 물자를 민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서 전담 관리가 따로 있었다. 그러나 덕종 대에 이르러 환관이 그 일을 맡으면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백성의 물건을 사 들이고, 심지어는 강탈하는 등 만행을 일삼았다. '五坊小兒'의 五坊은 鷹坊·鶴坊·鷹坊·鷓坊·狗坊 등 다섯 개 坊으로 황제의 오락에 필요한 동물을 기르는 곳이고, '小兒'는 여기에서 사육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환관이 이를 맡았다. 그들은 때지어 몰려다니면서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약탈하는 등 民怨의 표적이 되었다. 이 같은 '宮市'와 '五坊小兒' 등으로 인해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中唐의 전반부 30여년 동안 재위한 덕종은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인 군주였다. 그의 정치력 부재와 더불어 드러난 경제상의 실책으로

4) <資治通鑑> 권210, 唐玄宗開元元年: 「是後宦官稍增至三千餘人, 除三品將軍者浸多, 衣緋紫至千餘人, 宦官之盛自此始。」

당왕조는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정혁신의 발발을 초래한 직접적인 동기였다.

永貞革新은 德宗 통치기에 누적된 정치 폐단을 일소하기 위하여 順宗 시기에 일어난 정치개혁 운동이다. 貞元 21년(805) 정월, 덕종이 승하한 즉위한 順宗은 성품이 「孝敬하며 관대하고, 어질면서 과단성이 있는」<sup>5)</sup> 군주였다. 그는 太子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덕종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賢臣을 우대하고 궁중의 사치 풍조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환관의 전횡을 혐오하는 등<sup>6)</sup> 올바른 정치에 뜻을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주위에 개혁 성향이 농후한 士인들이 모여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후일 「二王」이라 불리우는 王叔文과 王伾는 개혁 집단의 구심점이 되어 韋執誼·劉禹錫·柳宗元 등 新進士人 세력을 규합하였다. 그리고 즉위 직전 中風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順宗은 그들이 행하는 정치적 개혁을 지지해 주었다.

혁신의 주요 내용은 宮市와 五坊小兒의 철폐·담관오리 京兆尹 李實 등의 파면·賢臣 陸贄 등의 赦免 표창·백성들의 官債 탕감·兩稅 외의 착취 임금·궁중내 불필요한 관리(翰林醫工·相工·星占, 宮女·教坊女樂 등)의 감축 등이다. 그리고 范希朝를 左右神策軍京西諸城鎮行營節度使로, 韓泰를 行軍司馬로 삼아 환관에게서 병권을 탈취코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볼 때, 개혁의 목적은 대략 두 방면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淸명한 정치로써 중앙 집권을 강화하여 번진의 발호를 억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환관의 세력을 약화시켜 정상적인 국가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은 기득권층인 환관과 번진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시켰다. 환관 俱文珍 일파는 西川節度使 韋皋·河東節度使 嚴綬·荊南節度使 裴均 등과 결탁하여 왕숙문 일파를 탄핵하는 한편, 순종에

5) 韓愈 <順宗實錄> 권1: 「慈孝寬大, 仁而善斷。」

6) <舊唐書> 권14 <順宗本紀>: 「德宗在位歲久, 稍不假權宰相。左右倖臣裴延齡·李齊運·韋渠牟等, 因間用事, 刻下取功, 而排陷陸贄·張滂輩, 人不敢言, 太子從容論爭, 故卒不任延齡·渠牟爲相。嘗侍宴魚藻宮, 張水嬉, 綵艦雕靡, 宮人引舟爲檀歌, 竹絲間發, 德宗歡甚, 太子引詩人好樂無荒爲對。每於數奏, 未嘗以顏色假借宦官。」

게 帝位를 선양하도록 강요하였다. 그 결과 재위 8개월만에 순종은 태자 李純(憲宗)에게 양위하였고, '二王'은 폄적되어 죽음을 당하였으며, 韋執誼·劉禹錫·柳宗元 등 8명의 핵심 인물들은 차례로 지방의 司馬로 좌천되었다. 이로써 영정혁신은 불과 146일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다.<sup>7)</sup>

영정혁신이 실패한 원인은 개혁 조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 세력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sup>8)</sup> '二王' 집단은 출신이 寒微하여 사회적 명성이 없었고, 따라서 정치 활동을 함에 있어 당시 사대부 계층의 지지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최대의 지지자였던 순종마저 중병 상태로 그들을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정 대신들과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二王' 집단의 개혁 태도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들은 조정의 重任을 맡게 되자 私感에 의해 人事를 단행하며 뇌물도 받고, 급기야는 내부세력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등<sup>9)</sup> 개혁에 역행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반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개혁 세력의 그러한 파행적인 행동에 대해 <順宗實錄>·<新·舊唐書>·<資治通鑑> 등의 史書에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지만, 개혁의 실질적인 조치가 「거리와 골목에서 환호하고(市里歡呼)」, 「백성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한(人情大悅)」<sup>10)</sup> 것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후세의 史家들은 영정혁신의 惡政 개혁은 「위로는 나라를 이롭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이롭게 하며, 단지 권력을 휘두르는 환관과 발호하는 번진에게 불리한」<sup>11)</sup>, 결론적으로 「민심을 통패하게 하고 나라의 기강을 깨끗하게 하

7) <柳宗元集> 권13, <故尙書戶部侍郎王君先太夫人河間劉氏誌文>: 「內贊謨畫, 不廢其位, 凡執事十四旬有六日。」

8) 영정혁신의 실패 원인은 夏燕 <“永貞革新”辨析>; 鄭學權·冷敏述 主編 <唐文化研究論文集>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4, 430-437쪽 참조.

9) 韓愈 <順宗實錄> 권5: 「其常所交結, 相次拔擢, 至一日除數人。」 司馬光 <資治通鑑> 권236·「唐順宗永貞元年」條: 「王叔文·王伾·李忠言之徒, 輒當重任, 賞罰任情, 墮紀紊綱。」 <舊唐書> 권85 <韋執誼傳>: 「執誼既爲叔文引用, 不敢負情, 然迫於公議, 時時立異……叔文詬怒, 遂成仇怨。」

10) <順宗實錄> 권2.

11) 清·王鳴盛, <十七史商榷> 권74: 「叔文行政, 上利於國, 下利於民, 獨不利於弄權

는, 12) 훌륭한 업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 다음 즉위한 憲宗의 정책과 실천을 놓고 볼 때, 이러한 평가는 확실히 일리가 있다. 헌종은 환관의 監軍 제도를 취소하여 장수들로 하여금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함으로써 변진을 평정하고, 조세를 경감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를 중용하여 善政을 베푸는 등 '元和 中興'의 국면을 이룩하였다. 이는 영정혁신의 긍정적인 면을 계승·발전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永貞革新에 대한 劉禹錫의 태도

永貞革新의 중심인물은 '二王'과 '八司馬'였다. '二王'은 王叔文과 王伾를 말하며, '八司馬'는 개혁 실패 후 司馬로 좌천된 8명의 士人を 말한다. 劉禹錫은 그 '八司馬' 중의 한 사람으로 영정혁신의 주요 인물이었다. 먼저 유우석의 성장배경과 당시 사회 분위기를 통해 그가 혁신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安史之亂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太宗 大曆 7년(772), 유우석은 蘇州 嘉興縣에서 태어났다. 13) 그의 부친 劉緒는 安史之亂의 피해자로서, 天寶 末 進士科에 급제하였으나 變亂의 발발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던 洛陽을 떠나 江南으로 이주하였다. 만약 변란이 없었다면 당시 出仕의 첩경이었던 진사와 합격자로서 그는 조정 고급관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란으로 타향을 떠돌던 유서는 浙西觀察使幕府에서 從事·鹽鐵副使를 지내다 埭橋(현 安徽省 宿縣 소재)에서의 공직을 끝으로 관직생활을 마감하였다.

之闈臣，跋扈之強藩。」

12) 清·王夫之 《讀通鑑論》권13·〈順宗〉: 「革德宗末年之亂政，以快人心，清國紀，亦云善矣。」

13) 劉禹錫의 생애에 관한 자료는 《新·舊唐書》외에 自傳으로서 <子劉子自傳>이 있고, 近人の 연구로는 卞孝萱의 《劉禹錫年譜》(北京, 中華書局, 1963)와 羅聯添의 <劉夢得年報>(《唐代詩文六家年譜》 臺北, 學海出版社, 1986), 卞孝萱·卞敏의 《劉禹錫評傳》(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6)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新·舊唐書》·<子劉子自傳>그리고 卞孝萱의 성과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러한 부친을 따라 생활하였던 유우석은 20세 이전까지 줄곧 강남에서 생활하였다. 강남 지역은 安史之亂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여 조정 貢物과 賦稅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고,<sup>14)</sup> 또한 亂을 피하여 이주한 문인들의 훌륭한 안식처가 되어 문화의 중심지로서도 손색이 없었다. 유우석은 마음놓고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좋은 사회 환경을 제공받은 셈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儒學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유우석은 어렸을 적부터 <詩經>·<書經>을 익혔으며,<sup>15)</sup> 병약하였지만 남다른 학구열과 문학적 재능으로 당대의 詩僧 皎然과 靈澈에게서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sup>16)</sup>. 특히 儒學으로 국가의 중흥을 꾀하던 中唐의 사회 분위기에서, 전통적인 유가 교육을 받았던 유우석으로서는 '兼濟天下'라는 정치이상 실현을 위해 出仕하고자 하였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20세 전후, 유우석은 長安으로 상경하여 유명인사들과 두루 교분을 맺었다. 그들에게서 인정을 받아 명성을 얻은<sup>17)</sup> 유우석은 貞元 9년(793) 22세 나이로 進士에 及第하였다. 그리고 2년 후, 吏部銓選을 통과하여 정식으로 出仕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그가 제수받은 관직이 太子校書였다.

태자교서는 從九品上의 말직으로, 東宮의 도서를 교감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다. 동궁에서 일하던 유우석과 貞元 初부터 太子를 모시면서 신임을 받고 있던 王叔文과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유우석이 본격적으로 왕숙문의 집단에 참가한 것은 貞元 19년(803) 겨울 監察御史 시절부터이다.<sup>18)</sup> 그 이전 유우석은 <通典>의 저자 杜佑의

14) 劉超驪 <山河歲月--疆域開拓與文化的地理環境>; <永恒的巨流>(臺北, 聯經出版社, 1981) 105쪽.

15) 權德輿 <送劉秀才登科後侍從赴東京觀省序>: 「始予見其卯, 已習詩書, 佩觸謙, 恭敬詳雅, 異乎其倫。」(<全唐文> 권491)

16) <劉賓客文集> 권19·<澈上人文集紀>: 「初上人在吳興居河山, 與畫公爲侶. 時予方以兩髦執筆視, 陪其吟詠, 皆曰孺子可教。」

17) <劉賓客文集> 권23·<謁枉山會禪師>: 「弱冠遊京城, 上書金馬外. 結交當世賢, 馳聲溢四塞。」

18) <資治通鑑> 권236·「唐德宗貞元19年」條: 「(叔文)密結翰林學士韋執誼及當時朝士有名而求速進者……柳宗元·劉禹錫等, 定爲死友……宗元·禹錫, 是爲監察御史。」



막부에서 書記를 하며 정치·경제·군사 각 방면에 걸쳐 견식을 넓히기도 하고, 韋夏卿·韓泰·柳宗元 등과 친분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들은 후일 혁신의 동지가 된 인사들로서 함께 章句의 혼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이해를 강조하는 《毛詩》의 대가 施士句를 사사함으로써, 혁신에 필요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방식을 배양하였다. 19)

감찰어사는 正八品上의 微官이기는 하나 관리들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특권이 있었다. 덕종 말기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에서 감찰어사에 임명된 유우석은 개혁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유우석을 왕숙문은 장차 「재상이 될 그릇」<sup>20)</sup>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실제로 순종이 즉위하여 왕숙문이 조정의 실권을 잡고 개혁을 주도하게 되자, 왕숙문은 유우석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대소 정사를 의논하였으며 그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였다.<sup>21)</sup> 당시 34세였던 유우석의 열정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順宗 때, 유우석이 대권에 관여하면서 문지기가 접수한 편지가 하루에 수천 통이나 되었다. 유우석은 일일이 謝意를 전하려고, 綠珠盆에 매일 밀가루 한 말로 풀을 섞어 붓투 부치는 데 사용하였다. (順從時, 劉禹錫干預大權, 門吏接書尺, 日數千, 禹錫一一報謝, 綠珠盆中, 日用麵一斗爲糊, 以供緘封.)<sup>22)</sup>

개혁의 중심 세력인 유우석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수천 통이 넘는 편지에 일일

유우석은 太子校書를 계수받고 1·2년 후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간 服喪하였고, 정원 16년(800) 복상이 끝나자 徐泗濼節度使 杜佑의 막부에서 書記를 하였다. 그해 가을 杜佑가 淮南節度使로 전임되자 함께 揚州로 갔고, 貞元 18년(802) 京兆府 渭南縣 主簿를 계수받았다. 이와 같이 유우석은 줄곧 장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 19년 감찰어사를 계수 받기 이전에는 왕숙문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19) 宋·王諱 《唐語林》권2·〈文學〉: 「與劉八·韓七詣施士句聽毛詩。」

20) 《舊唐書·劉禹錫傳》: 「時王叔文得幸太子, 禹錫以名重一時, 與之交, 叔文每稱有宰相器。」

21) 《新唐書·劉禹錫傳》: 「太子即位, 朝廷大議秘策多出叔文, 引禹錫及柳宗元與議禁中, 所言必從。」

22) 馮贇 《雲仙雜記》권5.

이 답장을 하였다든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힘썼는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개혁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野史이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을 헤아려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유우석의 태도와 개혁에 대한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은 실패로 끝났고, 유우석은 거의 평생을 실의와 좌절 속에서 보냈지만 그는 영정혁신의 정당성에 대하여 회의를 품은 적이 없었다. 영정혁신 직후, 유우석은 <上杜司徒書>에서 그의 소신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소인은 본성이 우매하고, 치국의 도를 연구함에 정통하지 못하며, 미숙한 학문으로 천박함을 드러내고, 젊어서 성격이 거칩니다. 성심을 다하면 의심을 끊을 수 있고, 공정함을 따르면 참소를 그치게 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삼가고 작은 일에 주의하여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함을 응축함에 가깝다고 생각하였고, 어려움이 닥쳐 지조를 지킴에 걸로 순종하는 척 하며 속마음을 숨기는 것을 불충하다고 여겼습니다. (小人受性顛蒙，涉道未至，末學見淺，少年氣粗，常謂盡誠可以絕嫌猜，徇公可以弭讒慝，謂慎獨防微爲近隘，謂艱貞用晦爲廢忠.)

유우석 自注에 의하면 이 글은 혁신 실패 후 朗州司馬로 좌천된 이듬해, 즉 元和 元年(806)에 쓴 것이다. 이 해 정월에 대사면이 있었지만, 王八司馬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이에 유우석은 평소 자신을 이해해 주었던 杜佑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밝히며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다. 우매한 본성과 젊은 혈기, 그리고 미숙한 학문과 治國의 道에 통달하지 못한 점을 유우석은 반성하고 있다. 실패자로서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겸허함을 보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신의 평소 소신을 꺾듯하게 피력하는 용기가 있었다. 그가 행한 개혁은 「성심을 다하고(盡誠)」·「공정함을 따르(徇公)」 애국적 행위였으나, 당시 정치 풍토는 그러한 행위

를 시기하고 비방하였다.

그는 또 올바른 參政태도를 밝히기도 하였다. 「혼자 있을 때에도 행동을 삼가한다(慎獨)」라거나 혹은 「작은 일에 주의하여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한다(防微)」 등과 같은 儒家의 미덕마저 소심한 것이라 치부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잠시 순종하는 척 하며 속마음을 숨기는 것」은 不忠이라고 하였다. 정치에 임하는 자는 마땅히 과감하여야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속과 겉이 달라서는 안됨을 강조한 것이다. 그가 영정혁신에 임하여 견지한 태도는 바로 이렇게 적극적이고도 직선적인 것이었다.

유우석은 죽는 날까지 永貞革新의 지지자였다. 실패한 개혁가로서 거의 평생을 비방에 시달리고 불우한 신세에 시름겨워했던 유우석은 會昌 2년(842), 향년 71세로 서거하였다. 더 이상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서거 직전에, 그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子劉子自傳〉이라는 짤막한 自傳을 남겼다.

〈子劉子自傳〉의 내용은 크게 두 방면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家世와 監察御史에 발탁되기 이전까지의 경력을 소개하였고, 후반부에서는 順宗 시기의 혁신과 禪讓에 관한 사건, 그리고 혁신 실패 후 자신의 생애에 관하여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혁신의 영수였던 왕숙문과 영정혁신에 대하여 평가한 대목을 보면, 그가 평생을 통하여 영정혁신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초 왕숙문은 北海人으로 자칭 王猛의 후예였는데 遠祖의 풍모를 가지고 있었다. 단지 東平 呂溫·隴西 李景儉 및 河東 柳宗元만이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나와 교분이 깊고 두터웠으며, 밤낮 함께 지내면서 숙문의 재능을 칭찬하였다. 숙문은 실로 치국의 도리에 대하여 잘 말하였고,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 동용되고 나서, 봄부터 가을까지 시행한 바에 대하여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初, 叔文北海人, 自言猛之後, 有遠祖風. 唯東平呂溫·隴西李景儉·河東柳宗元以爲信然. 三子者皆子厚善, 日夕過, 言其能. 叔文實工言治道, 能以口辯移人. 既得用, 自春至秋, 其所施爲, 人不以爲當非.)

왕숙문이 먼 조상이라고 밝혔던 王猛은 北海劇(현 山東省 壽光縣) 사람으로 前秦 苻堅의 승상이었다. 그는 苻堅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면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여 前秦을 萬國強兵한 국가로 만들었다. 唐代的 士인들이 문벌을 중시하는 당시의 풍조에 부합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왕맹이 정말로 왕숙문의 조상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어쩌면 왕맹의 업적을 흠모한 왕숙문이 그를 조상으로 모심으로써 자신의 희망을 기탁하였는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개혁 집단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고, 아울러 왕숙문이 그러한 조상의 능력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왕숙문의 爲人에 대해 한유는 「간사하고 거짓되며 잔피가 많다(詭譎多計)」,<sup>23)</sup>라고 한 반면에, 유우석은 「치국의 도리에 대하여 잘 말하고」·「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찬양하였다.

왕숙문에 대한 유우석의 인정은 바로 그가 주도하였던 혁신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유우석은 146일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이 단행하였던 개혁은 백성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올바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IV. 劉禹錫에 대한 永貞革新의 영향

劉禹錫은 영정혁신의 실패로 인해 貞元 21년(永貞 1년, 805) 34세의 나에 朗州司馬로 폄적되었다. 그후 連州刺史·夔州刺史·和州刺史를 거쳐, 大和 1년(827) 6월 主客郎中分司東都에 제수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가 56세이니 폄적생활은 23년간 계속되었던 것이다.

폼적기간 동안의 생활은 「풍습이 비루하고 모든 습속이 다르며 더불어 말할 사람도 없는」<sup>24)</sup> 南方의 타향에서 영위되었으니, 그곳에서 느끼는 고

23) <順宗實錄> 권1.

24) <舊唐書·劉禹錫傳>: 「土風僻陋, 舉目殊俗, 無可與言者。」

독감은 매우 컸으리라 짐작된다. 더욱이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갑자기 환난이 일어나니, 거짓된 비방이 넷물처럼 끊이지 않고: 실상 없이 교묘히 꾸며대는 말 묘하게 맞아 떨어지니, 변명하려 해도 방법이 없는」<sup>25)</sup> 상황이였다. 따라서 평생동안 영정혁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우석으로서는 정신적인 고통과 비분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꺾적생활은 유우석 시의 재재와 감정을 풍부하게 해주었고, 그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詩世界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몽득의 좋은 시는 대부분 朗州·連州·夔州·和州에 있을 때의 작품(夢得佳詩, 多在朗·連·夔·和時作)」<sup>26)</sup>이라는 評語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貶謫기간은 유우석의 창작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닌 시기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즉 유우석 작품 세계의 구축에는 영정혁신 실패에 따른 꺾적이라는 외적인 상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꺾적기간 중, 劉禹錫은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政治詩로, 지방관으로서 民間과 관련된 정서를 樂府詩로, 그리고 역사를 회고하며 얻은 교훈을 詠史詩로 표출하였다. 따라서 이 세가지 유형의 詩歌로부터 꺾적시기 시세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영정혁신 이전 유우석의 정치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時政의 폐단을 폭로하거나 건설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혁신 실패 이후 관련 인사들이 죽거나 꺾적당하는 상황에서 유우석은 분노를 금치 못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항의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내심의 抑鬱함이 표출된 그의 정치시는 감정이 격렬하고 풍자성이 강한 특징을 띄게 되었다.<sup>27)</sup> 예를 들어 백 가지 새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는 百舌鳥를 등장시킨 〈百舌吟〉은 시세에 영합하여 아부와 巧言을 일삼는 佞臣을 풍자하였고, 〈飛鳶操〉에서는 표리부동한 權貴를 「송골매 자태에 땅강아지와 개미의 마음(鷹隼儀形蟻蟻心)」을 가진 소리개에 비유하였으며, 〈聚蚊謠〉는 보

25) <劉賓客文集> 권18, <上淮南李相公啓>: 「駭機一發, 浮謗如川. 巧言奇中, 別白無路。」

26) 賀裳·<載酒園詩話又編·劉禹錫>

27) 許總·<唐詩史> 下,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4, 307쪽.

이지 않는 곳에서 개혁 세력을 비방하고 괴롭혔던 宦官과 權臣들을 「어둠을 틔타 우리 같은 소리 내며 날아 드는 모기(飛蚊伺暗聲如雷)」로 풍자하고 있다.

이같은 풍자와 비유의 수법으로 일관한 정치시 외에, 직설과 찬미 위주의 정치시도 있다. 찬미의 대상은 주로 憲宗 시기의 성공적인 번진 평정이었다. 예를 들어 <平蔡州三首>는 淮西 번진 반란의 평정을 축하한 시로서, 元和 12년(817) 李愬가 蔡州城을 기습하여 반군의 우두머리 吳元濟를 생포한 사건을 기술하였다. 그 중 제2수의 마지막 2구에서 「문득 놀랍게도 元和 12년에, 천보 이온 태평성대 다시 보게 되었네(忽驚元和十二載, 重見天寶承平時)」라고 하여, '원화 12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반란 평정 이후 현종 시기의 '天寶'에 버금가는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유우석의 謫居地는 대부분 정치·경제·문화의 사각지대였던 남방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하층 민중의 생활을 체험하였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창작의 영감을 얻기도 하였다. 특히 생동적이고 진솔한 민가는 사대부 시인인 유우석의 시세계를 확장시켜 주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가·속요 이기는 하나 문인의 詩篇과 짝을 이룰 수 있다(雖眈謠俚音, 可儷風什)」<sup>28)</sup>고 인식한 유우석은 주동적으로 민간 가요를 익혀 다량의 民歌體 樂府詩를 창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을 통하여 그는 중당 시단에서 창조적이고 독특한 풍모를 지닌 시인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평적 기간 중 朗州에서의 10년을 유우석 악부시 창작에 있어 기초를 다진 개척기였다고 한다면, 폼적 후기인 夔州 3년간은 그 집대성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따라서 폼적초기 작품으로 沅江의 競渡를 소재로 한 <競渡曲>이나 마름 따는 광경을 묘사한 <採菱行> 등의 秀作이 있기는 하나, 완성도가 높은 작품은 아무래도 후기의 것이 많다. 그 가운데 <竹枝詞> 11수가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詩들은 「유우석의 뛰어난 재능이

28) <劉賓客文集> 권18·<上淮南李相公啓>

29) 肖瑞峰 <論劉禹錫的民歌體樂府詩>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9.5), 100쪽.

모두 결집되어 있는」<sup>30)</sup> 「원화 시기의 독보적인」<sup>31)</sup> 작품으로 극찬을 받고 있다. 〈竹枝詞九首〉 중에서 청신한 民歌風에 편적의 悲哀를 담고 있는 제 8수를 예로 들어본다.

巫峽蒼蒼烟雨時.	무협에 회부연 안개비 내릴 적,
淸猿啼在最高處.	높은가지 위 처량한 원숭이 울음소리.
箇裏愁人腸自斷.	여기 수심어린 나그네 애간장 절로 끊어지니,
由來不是此聲悲.	이 소리 구슬프기 때문이 아니라네.

이 시의 배경은 쓸쓸하게 안개비 내리는 무협, 게다가 저 먼 곳 나무 가지 끝에서 원숭이 떼가 구슬프게 울어댄다. 그렇지 않아도 객지에서 시름겨운 나그네는 이 길을 가며 당연히 斷腸의 비애를 느낄 터이다. 그런데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슬픈 원인이 '원숭이의 처량한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공간에 있는 '愁人'의 모습에서 고립무원이었던 유우석의 신세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원숭이의 처량한 울음소리'는 시인에게 편적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고,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절망과 슬픔을 느낄 뿐이다. 집 떠난 나그네의 모습은 민간의 가장 보편적인 日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여기에다 유우석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평이한 언어로 완곡하게 투영함으로써 깊은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

편적으로 인한 고독과 비애감으로 인하여 유우석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그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행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성과 분석을 통하여 교훈을 얻었다. 역사를 관조하는 가운데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가운데 자신의 회포를 풀어내었던 것이다. 〈蜀先主廟〉는 이러한 詠史詩의 대표작

30) 翁方綱, 《石洲詩話》 권2: 「劉賓客能事, 全在竹枝詞。」

31) 黃庭堅, 《豫章文集》 권26, 〈跋劉夢得竹枝歌〉: 「劉夢得竹枝九章, 詞意高妙, 元和間誠可以獨步。」

이라 할 수 있다..

天下英雄氣,	천하 영웅의 기개는,
千秋尙凜然,	천년 후에도 늠름하도다.
勢分三足鼎,	세력은 나뉘어 셋으로 정립되고,
業復五銖錢.	대업은 五銖錢 제도 회복하였다.
得相能開國,	승상 얻어 나라를 세울 수 있었지만,
生兒不象賢.	낳은 자식 애비처럼 현명하지 못하였다.
淒涼蜀故妓,	치량토다 촉나라 옛 기생이여,
來舞魏宮前.	위나라 궁 앞에 와 춤을 춘다.

蜀先主는 劉備를 가리킨다. 그의 묘는 夔州에 있으니 이 작품은 유우석이 夔州刺史로 있을 때 쓴 것이다. 기주에서 유비의 사당을 찾은 그는 촉나라의 흥망성쇠에 자신의 현실 정치에 대한 인식을 기탁하여 의미심장한 시를 지었다.

유비는 천하의 영웅으로, 그 위풍당당한 기개는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다. 魏·吳와 더불어 삼국의 기세를 형성한 그의 치적은 漢王室을 부흥시킨 것이었다. '五銖錢'은 한대의 절정기였던 武帝 때의 화폐로, 이 제도의 부흥은 바로 한왕실의 부흥을 의미한다. 유비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蜀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승상 제갈공명이었다. 인재를 귀중히 여긴 유비는 '三顧草廬'로써 그를 出仕시켰고, 공명은 부강한 蜀을 만들어 이에 보답하였다. 그러나 불초한 劉禪은 유비의 왕업을 잇지 못하고 魏에 멸망당하고 말았다. 魏 궁전에 포로로 끌려온 蜀 기생의 춤을 보는 사람들은 역사의 비애와 무상함에 모두 창연해 하지만, 유선은 '즐거워 촉나라는 생각지도 않았다(樂不思蜀)',<sup>32)</sup>

'영웅의 기개(英雄氣)'가 있는 유비와 '애비처럼 현명하지 못한(不象賢)' 유선의 부자 관계는 憲宗과 그의 아들 穆宗을 연상시킨다. 유우석이 夔州刺史를 제수받은 長慶 원년(821), 穆宗이 憲宗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다. 헌종은 번진을 평정하고 정치를 안정시켜 '元和 中興'을 이룩한 영명한 일

32) <三國志·蜀書> 권33 <後主傳>



면이 있었던 반면, 그의 아들 목종은 국정에는 무관심하고 道樂만 일삼는 荒淫無道한 군주였다. 이러한 현종 부자와 유비 부자간의 유사성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시인의 관심과 우려를 詩間에서 읽을 수 있다.

유우석은 역사가의 냉철한 태도와 정치가의 예리한 안목을 지녔다. 게다가 폄적으로 인한 人生苦는 그를 감수성 풍부한 시인으로 성장케 하였고, 이러한 점들은 유우석이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 V. 맺음말

中唐 문인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강렬한 참정 의식은 盛唐 문인들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태평성대에 살면서 낭만적인 청소년기를 보낸 성당 문인들은 공명육이 앞섰을 뿐 실제 정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연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암울한 시대를 지낸 中唐의 문인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겪어 民生의 疾苦를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사하여 참정코자 하는 성향이 강하였다.<sup>33)</sup>

劉禹錫의 정치 생애와 이로 인한 인생의 변환은 중당 문인에게 있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永貞革新의 실질적인 개혁 조치는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지만, 기득층의 반발로 인하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개혁의 중심세력이었던 유우석은 정치 인생에 있어 커다란 좌절과 시련을 겪어야 했으나, 평생을 통하여 혁신의 지지자로 자처하였다.

유우석은 일생의 중요한 시기를 폄적지에서 보냈으나, 울분과 실의 속에서도 백절불굴의 의지를 키웠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의 감수성은 고양되었고 정치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었으며 폄적지를 떠돌면서 준엄한 史家의 안

33) 尙永亮 <元和五大詩人與貶謫文學考論>(臺北, 文津出版社, 1993), 59-62쪽.

목으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회고하기도 하였다. 풍자와 찬미를 겸한 政治詩, 民歌의 진수를 체득한 樂府詩, 역사의 회고와 교훈을 겸한 詠史詩는 中唐詩歌의 수준을 높이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렇게 개성있고 다양한 그의 詩世界는 바로 永貞革新이라는 정치혁신운동과 그 실패로 인한 작가의식의 부산물이었다는 점에서, 劉禹錫과 永貞革新의 관계를 단순히 정치적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 歐陽修 <新唐書> 台北, 鼎文書局, 1979  
臺靜農編 <百種詩話類編> 台北, 藝文印書館, 1974  
司馬光 <資治通鑑> 台北, 蒲公英出版社  
劉昫 <舊唐書> 台北, 鼎文書局, 1979  
馬其和 校注 <韓昌黎詩文集校注> 台北, 漢京文化事業公司, 1983  
卞孝萱·吳汝煜 <劉禹錫>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尚永亮, <元和五大詩人與貶謫文學考論> 臺北, 文津出版社, 1993  
羅聯添 <唐代詩文六家年譜> 臺北, 學海出版社, 1986  
卞孝萱 <劉禹錫年譜> 北京, 中華書局, 1963  
卞孝萱·卞敏 <劉禹錫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6  
瞿蛻園 <劉禹錫集箋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高志忠 <劉禹錫詩文繫年>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1988  
許總 <唐詩史> 上下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4  
肖瑞峰 <論劉禹錫的民歌體樂府詩>: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9.5  
夏燕 <“永貞革新”辨析>: 鄭學標·冷敏述 主編 <唐文化研究論文集>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4  
劉超驊 <山河歲月—疆域開拓與文化的地理環境>: <永恆的巨流> [中國文化新論·根源篇] 臺北, 聯經出版社, 1981